

光州日熙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1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9월 15일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AI 센터 불발 광주에 'SK-오픈AI 데이터센터' 오나

정부, 민심 수습책으로 비공식 제안에 향후 조율 관심 광주시 "민간 데이터센터로는 AI 생태계 구축 한계"

국가AI 컴퓨팅센터의 전남행이 사실상 굳어지 자 정부가 광주시에 'SK-오픈AI 데이터센터'의 광주 유치를 비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일단 '공공성 없는 민간 단독 시설 유 치는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정부가 어떤 추가 조건을 제시느냐에 따라 입장이 바뀔 여지가 있어 조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대통령실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광 주시에 SK그룹과 오픈AI가 추진하는 AI데이터 센터의 광주 유치 의사를 타진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총 5만장 규모의 GPU (그래픽 처리장치) 인프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광주시의 예상과 달리 전남 해남으로 기우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애초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연 계해 국가 AI 센터 유치에 나섰으나, 단독 입찰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해남 솔라시도 부지를 사업 지로 점찍으면서 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했다.

정부가 거론한 'SK-오픈AI 데이터센터'는 우 리나라 서남권으로 입지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SK그룹은 앞서 오픈AI와 '한국 서남권'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MOU)을 체결한 바 있다.

액면대로라면 SK-오픈AI 데이터센터는 서남 권 구축을 골자로 MOU가 체결된 상태로, 광주· 전남 복수 후보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기업의 최종 입지 결정은 전력요금, 계통 증 설, 세제 등 인센티브와 직결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설계가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서남권'에 광주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 고, 국가 AI 센터를 전남에 배정하는 대신 SK-오 픈AI 센터를 광주에 유치해 지역 간 균형을 맞추려 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AI컴퓨 팅센터 유치무산에 따른 광주 지역 반발을 누그러 뜨릴 '대안 카드'를 찾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광주시는 정부의 제안에 "대선·국정과제 공약 이행"이 먼저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 졌다. 광주시가 정부 제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는 "민간 단독센터로는 지역 파급효과가 제 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시는 데이터센터가 지역 AI 생태계와 연결되려 면 공공적 용도의 연산자원(대규모 GPU)을 지역 AI산업 생태계 조성·연구·교육·창업에 개방하는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국가 주도형 인프라의 공공 기능이 빠 진 채 민간센터만 들어오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 다"며 정부의 '플러스 알파'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국가센터(해남)와 글 로벌 민간센터(광주)를 함께 세워 서남권 AI 투 톱 체계를 구축할지, 아니면 해남 단일 축으로 갈 지"가 향후 조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광주시가 제시한 공공성 조건과 정부의 지원 패 키지가 맞물릴 경우, 광주행 시나리오가 공식 안 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공약의 무게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기업이 이에 호응해 실질적 공공 기여를 약속한다면, 광주와 해남을 잇는 서남권 AI 벨트 가 '갈등의 축'이 아니라 '상생의 축'으로 재설계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는 25일 개관 10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콘텐츠 허브' 로 자리매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향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ACC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CC 10년 ··· 문화 발전소 '성과' ·지역 공헌은 '과제'

복합문화공간 지역 랜드마크 지역 밀착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에 친숙한 공간 거듭나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문화전당, 전당장 김상욱)이 오는 25일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2015년 11월 개관한 문화전당은 그동안 아시아 문화예술 가치를 창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와 달리 지역과 밀착되지 못한 채 '콧대 높은' 국립 문화기관으로 존재한다는 일부 부정적인 평 가도 있다. 이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 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읽 지 못하고 중앙과 세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맞닿는 지점이다.

3일 ACC에 따르면 개관 이래 지난 9월까지 누 적 방문객이 2152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4년에는 최초 한 해 방문객 수가 320만 명을 넘어섰다. 특 히 올해 8월은 방문객 수가 45만 명으로 한 달 방 문객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는 1~9월 방문객 이 264만 명에 이르렀다.

개관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ACC가 제공한 콘텐 츠는 총 2162건이다. 이 가운데 창·제작 콘텐츠 비 중은 1739건으로 80%에 달한다. ACC는 문화예 술을 창·제작하는 '문화발전소'이자 문화로 즐거 움을 누리는 '문화사랑방' 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온 것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그동안 ACC는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기관으 로서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형 태의 융복합예술 연구를 추진해왔다. 국내외 작가 들이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며 문 화예술로 영역이 확장할 수 있도록 레지던시 프로 그램과 창·제작 스튜디오 및 융복합 연구개발 실 험실(Lab)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ACC가 개관 10주년에 맞는 위상과 존재감을 보여줬는지 는 문화계 안팎의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문 화전당 출발 당시 전당의 기능과 역할이 10년이 지난 현재의 관점에서 당초 의도했던 역할을 수행 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껏 문화전당 은한 단계 '벽'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던 게 사실이 다. 지역 내에서 시민에게 친숙한 문화 공간의 이 미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차제 에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문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사회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인사 A씨는 "ACC에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문화 공간이 많지만 시민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고 있는 면이 많다"며 "단순한 영역이지만 이에 대한 고심을 깊이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

또한 "지역 교류 측면에서 개관 이후 많은 지적 을 받으며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부분은 있다"면서

도 "시민들의 문화적 삶과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 키기 위해 문화전당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실 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

시민의 문화의식도 중요하지만 소구력이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많은 종 류의 콘텐츠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도 나름 의미 가 있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광주가 문화중심도시 라는 자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 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계 인사 B씨는 "언제쯤 문화전당의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금남로에서 ACC까지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다"며 "시민들의 문화 적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이벤트' 등 을 기획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욱 전당장은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예술기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 영하고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어나가겠다" 며 "전당의 문턱을 낮추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 의 협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이 선도하는 'K-지역관광시대' 관광개발포럼 오늘 순천서 열린다

전남이 22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천혜의 자연· 해양 관광자원과 섬・너른 갯벌 등 독특한 관광 산

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일보와 전남관광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전남관광개발 포럼'이 4일 오후 2시부터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 전남도와 22개 시·군 관광 업무 관련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지역관광시대 전남 이 선도하다'를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와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내놓고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내외를 '제 2·제3의 관광권'으로 집중 육성키로 한 가운데 전남만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랜드마크'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남부권을 글로벌 관광수도로 육성하는 초대형

관광개발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도 본격화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논의 내용에 관심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관광의 내일'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서고 최경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콘텐츠와 남 해안 관광의 융합발전전략', 심원섭 목포대 교수 는 'K-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각각 맡는다.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도 주제 발표 뒤 진행된 다.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남해안 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 로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이진의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박동철 굿필투어 대표,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선임연구위원, 심원섭 목포대 교수 등이 패널 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차량 매입 프로그램 및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을 오라인 계약금 결제 중에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처랑 조건 중대 로그램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중기 Trade-in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